

서재, 세상을 말하다

박지원의 연암산방(燕岩山房)



박철상 문학박사·광주은행 영업지원부장

우리의 일상은 늘 웃음 속에 싸여있다. 텔레비전을 켜도, 신문을 펼쳐도, 인터넷에 접속해도 가장 먼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웃음이다. 웃음은 이미 돈으로 환산되고 있고 전문적으로 웃음을 만드는 직업이 커다란 산업으로 자리 잡은 마당에 당연한 일이라는 하다. 상황이 어떻다보니 환경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웃음을 강요한다. 그리고 우리는 고달픈 삶을 달래기 위해 웃음의 대가로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조선시대의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역시 지친 삶을 달래줄 웃음에 늘 목말라 했고, 그들의 웃음은 그들이 남긴 문

학작품 속에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그는 서울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관직에는 큰 뜻이 없었다. 혼탁한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탐탁찮게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1778년, 가족을 이끌고 황해도 금천군 연암골로 숨어들었다.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흥국영의 눈 밖에 났던 개 화교인이었다.

박지원을 아꼈던 유언호는 서울을 떠나 있을 것을 권유하였고, 박지원은 그의 말대로 연암골에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 그곳이 바로 박지원의 서재 연암산방(燕岩山房)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그 때문에 죽을 때까지 연암이란 호를 썼던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 삼종형 박명원을 따라 중국에 다녀왔고 이때의 견문을 정리하여 불후의 명저 ‘열하일기’를 쓰게 된다. 이 책이 등장하자 젊은이들은 그의 문체를 따라 썼고, 박지원의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 소문을 들은 정조 임금은 당시 선비들의 문제가 예스라지 못한 것에 대

한 책임이 박지원에게 있다고 여겼다. 정조가 문제 삼은 것은 문장이 순정하지 못하고 경박하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는 박지원에게 반성문을 지어 올리게까지 하였다. 그의 문장의 위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어느 날 박지원은 집안사람들이 굶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박제자에게 알리며 돈 좀 꾸달라는 편지를 썼다. 아울러 술도 한 병 보내달라고 하였다. 세상에 집안사람들이 모두 굶고 있는 마당에 왜 술타령이란 말인가? 이런 부탁을 받은 박제가는 어떻게 했을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우선 이 돈으로 쌀을 사서 허기나 채우라며 편지를 전하는 종놈에게 돈 2백전을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편지 끝에 한 마디 썼다. “술은 없습니니다. 세상에 양주학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양주자사(揚州刺史)가 되고 싶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허리춤에 1만 관(貫)을 차고 다니는 부자가 되고 싶네.”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학(鶴)을 타고 다니는 신선이 되고

싶네.” 그러자 나머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허리춤에 1만관의 돈을 차고, 학을 타고서 양주 하늘을 날고 싶네.” 앞선 세 사람의 소원도 모두 쉬운 게 아니다. 양주학(揚州鶴)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루고 싶어 하는 인간의 세속적 욕망을 가리킨다. 세상에 어찌 양주학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돈 2백전을 마련하는 것도 내게는 힘에 부치는 일인데, 어찌 술까지 보낼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술은 보낼 수 없습니다. 빈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빈 술병을 받은 박지원은 박제가의 우정을 마음 깊이 새겼을 것이다.

박지원은 한 시대의 선구자였지만 그의 삶이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런 속에서 그의 문학은 탄생한 것이다. 그의 문학에 담긴 해학과 유머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웃음을 찾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우리는 늘 양주학의 유혹에 빠져든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연암산방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박제가의 빈 술병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특별기고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이 답이다



이명종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같은 물을 먹어도 젖소는 우유를 생산하고 독사는 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같은 것이라도 배경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러한 논리를 경제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예컨대 같은 액수의 돈을 투입하더라도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고용에 파급되는 효과는 다르다.

한국은행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산업연관표(input output analysis)를 이용하여 취업유발계수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 특정 산업부문에 최종적으로 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즉 쉽게 말해 10억원을 투자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

자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는 고용효과가 어디가 높은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주요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화학 5.5명, 철강 4.4명, 전기전자 5.1명 등 제조업은 낮은 반면 음식·숙박 27.3명, 문화 26.7명, 도소매 20.4명, 보건·사회복지 18.8명 등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면 광주, 전남의 산업별 특징은 어떠한가? 광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은 28.3%, 서비스업 65.0%, 건설업 4.9%이고 전남은 제조업 38.2%, 서비스업 42.4%, 건설업 7.7%, 농업어업 8.8%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제조업 31.1%, 서비스업 59.7%, 건설업 4.9%인 점에 비추어 광주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제구조 하에서 광주전남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해 본다.

첫째,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도 광주충정역→용산 구간이 개통했다. 이어 7월에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고 9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된다.

이러한 이벤트를 계기로 남도를 찾는 국내외 많은 손님이 남도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관광은 바로 그 효과가 음식숙박 및 도소매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폭격 있고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이 많고 남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먹거리, 즐길거리가 제공된다면 관광효과는 분명한 높아질 것으로 믿는다.

둘째로 이제는 호남선 KTX가 개통되었으니 광주충정역을 거점으로 하고 전남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 제대로 되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남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불편하거나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향후 남도 관광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다.

셋째로 KTX 개통이전에도 코레일관광상품점 가장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청산도·보길도 관광이고 외도·순천만, 흥도·흑산도 관광 등도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최근에는 여수의 해상케이블카, 비렁길 걷기 등을 위해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제는 KTX 개통으로 남도관

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넷째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뿐만 아니라 남도의 풍부한 문화, 역사자원 콘텐츠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문화 부문 일자리가 더욱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탄실한 기반을 갖춰왔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3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서 개최된 “KTX개통에 따른 광주전남경제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전남대학교 국제메디컬센터장님은 2013년 전남대학교병원원이 해외환자 유치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앞으로도 남도의 의료 관광은 전망이 밝다고 본다. 치유의 숲, 섬을 품고 있는 바다, 남도 음식 등과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연계한다면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본다. 금년에 광주전남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이벤트를 계기로 남도의 의료관광을 적극 알리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KTX 개통으로 수도권과 해외의 환자가 더욱 많이 유치하여 노동집약적인 의료분야에서 남도의 일자리가 팍팍 늘어났으면 좋겠다.

기고

열악한 지방재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조승한 광주광역시 서구청 기획실장

올해로 민선자치 20년을 맞이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하고 있다. 국가재정 자원 배분의 근간이 되는 조세할당에 있어서 국제 중심의 구조가 고착되어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재정 불균형으로 지방자치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서구의 경우를 보면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3290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 408억 원(14.2%)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1%, 이전재원(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76%, 기타 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전재원 중에서도 목적이 지정된 보조금

이 85.9%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자치구 재정 자율권의 척도인 재정자립도(31.7%)는 전년 대비 오히려 0.8%가 하락하였다.

이처럼 보조금 비중이 확대된 주된 요인은 영유아 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일자리 창출 등 국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것이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계속되는 복지사업 확대로 2010년 1307억 원이던 사회복지비는 2015년 2069억 원으로 5년 동안 762억 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규모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비 부담도 2010년 102억 원에서 165억 원으로 무려 63억 원이 증가하였다.

국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자치구 부담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대의 한계가 있어 자체수입으로는 겨우 인건비 정도만 충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가정청소 민간위탁금,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분 등 2015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가 144억 원에 이르렀다.

더구나, 올해는 전 세계 대학생의 축적 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펼쳐진다. 특히 세계 각국의 선수 및 임원들의 숙소와 염주체육관을 비롯한 월드컵경기장 등 주경기장이 서구에 위치하고 있어 많은 외지인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선수촌 및 경기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 자원봉사자 모집·활동 등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열악한 구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배분방식의 제도개선과 관행적인 예산집행의 대전환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참여가 중요하다.

우선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수행경비 총당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현재 광역시·도, 시·군에만 교부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까지 포함하여 배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공동주택지원 등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불필요한 사업비 절감, 경상경비 10%의 무부절감 등 자체 노력을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억제하고, 체납금 등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국·시·비 사업의 발굴, 각종 공모·평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외부재원 확보와 함께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리 구에서는 공적부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 복지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웃 간에 서로 돕는 공동체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마을의 소소한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 주관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민선 6기 구정목표가 ‘함께하는 주민 자치 살맛나는 으뜸서구’다.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으뜸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社說

‘주인’ 없이 치러야 할 5·18 35주년 기념식

다시 오월, 민주와 인권, 평화의 햇볕을 높이 치켜들며 죽음과 피로써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루어낸 5·18은 우리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5·18은 35년이 다된 지금까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 공식 사망자 수가 확인되지 않고, 발표 명령자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등 희생자의 원혼조차 달래지 못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념 논쟁의 골짜기 속에 5·18에 대한 편향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점이다.

이런 현실에서 올해 35주년 기념식은 대통령, 국무총리, 5·18 피해 당사자, 유족조차 없는 사상 초유의 ‘4無’ 기념식으로 치러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총리가 공석이라 대통령마저 불참할 경우 자칫 대통령·총리 없는, 유례없는 국가기념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5·18 유족회, (구속)부상자회

등이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념식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어 보존처 주관의 ‘반쪽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5월 단체와 행사위원회가 기념곡 지정과 제정을 요청하기 위해 6월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성대하게 치러도 모자랄 5·18 35주년이 국가기념일 지정 이래 가장 초라한,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이명박 정권 이후 지난해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제대로 된 행사를 치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년 전 국회에서 결의한까지 채택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5·18은 한국 민주화의 초석이 된 숭고한 희생이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박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석,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노인보호구역 ‘실버존’ 제대로 알고 지키자

스쿨존(school zone)은 알아도 실버존(silver zone)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스쿨존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근처에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마찬가지로 실버존은 교통 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노인보호구역이다.

실버존에서는 운전자의 경우 시속 30km 또는 5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지자체도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갖추게 돼 있다. 실버존에서의 범규 위반 차들은 일반도로에 비해 2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물게 된다. 예를 들어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지시 위반 차량은 승용차 기준 12만 원을, 불법주·정차 차량의 경우 8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실버존 제도는 관계 당국과 운전자들의 무관심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는 데다 안전시설도 제

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인 통행이 빈번한 곳에도 아직 실버존으로 지정되지 못한 곳도 많다. 예를 들어 노인 보행자 사고가 가장 빈번했던 곳으로 조사된 양동시장, 대인시장, 말배우시장, 광산구 송정 5일 시장 등은 아직까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매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사고 사망자 중 30%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실버존을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교육 및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효과와 효과가 없다. 실버존의 제도 보완과 확대 지정 및 효율적인 운영이 절실하다. 노인들이 길을 건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횡단보도 보행 시간 연장 조치 등도 있어야 한다.

無等鼓

소나무 아래 호랑이가 앉아 있다. 소나무 가지에 앉은 까치 1~2마리가 호랑이를 내려다보며 뭐라 종알거리는 듯하다. 이런 까치를 바라보는 호랑이는 무심다가보다 익살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이런 옛 그림을 ‘작호도(鶴虎圖)라 하는데 선조들은 정월 초하루에 ‘액운과 잡귀를 내쫓고 좋은 소식을 불러오라’는 바람을 담아 대문이나 집안에 작호도를 붙였다고 한다. 이 그림은 당시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는 풍자도 담고 있다.

선량하고 힘없는 백성(까치)이 부패한 관리(호랑이)를 조롱하며 꾸짖는 그림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일본 민예운동가 야나기 무네요시는 이러한 조선시대 후기 무명 화가들의 소박한 그림을 ‘민화(民畵)라 이름 붙이고 ‘민중의, 민중을 위한, 민중을 위한 그림’이라고 정의했다.

민화는 오방색(靑·赤·黃·白·靛)을 근거로 한 갈릴한 색채 사용과 단순한 구성, 평면적 묘사가 특징이다. 무명의 화가들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당대 서민들의 삶과 신앙, 풍류, 정서 등 모든 것을 화폭에 담았다.

민화는 조선 후기 서민들의 실생활도 밀접했다. 화강연용 병풍으로는 불로장생의 상징인 천도(天桃)와 사슴, 거북, 해, 달 등 10가지를 그린 ‘십장생도(十長生圖)를 사용했다. 부부 방에는 아이를 많이 낳고(물고기) 서로 화합하며(게·조개) 백년해로(새우) 하라는 의미를 담아 ‘어해도(魚蟹圖)를, 노인 방에는 부귀와 장수를 기원하는 신선동자도(神仙童子圖)를, 선비 방에는 유교의 덕목을 담은 ‘문자도(文字圖)와 문방사우 등이 그려진 ‘책가도(冊架圖)를 장식했다고 한다.

역사 속 뒤안길에 파묻혀 있던 조선시대 민화박물관

문화유산 수천 점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한국 민화뮤지엄’이 지난 2월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청자촌에서 문을 열었다. ‘민화 속의 옛이야기’ 등 테마별로 나눈 전시실 다양한 작품과 어진화사(御眞畵師) 채홍신의 8폭 ‘삼국지연의’ 대작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절로 독특하면서도 환상적인 예술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듯하다.

19세 이상 성인만을 위한 팀 하나. 박물관 2층에는 한·중·일 3국의 춘화(春畵)작품도 전시돼 있으니 빠뜨리지 말길...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